



강화군, 'DMZ 평화의 길' 9월부터 코스 재개

11월 까지, 주 4일(목,금,토,일) 운영, 일일 최대 20명 선착순 예약

강화군이 여름철 잠시 중단했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9월 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11월까지 주 4일(목, 금, 토, 일) 운영되며, 일일 최대 참여 인원은 20명으로 예약은 두루누비 사이트(www.dmwalk.com)에서 할 수 있다. 기상, 안보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투어 취소 또는 대체 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안보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평

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화전쟁박물관 - 6.25참전용사 기념공원 - 강화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대룡시장 - 화개정원'까지 총 62.5Km 구간으로 버스 및 도보(1.5km)로 투어를 진행한다.

한편, 군에서는 'DMZ 평화의 길 강화 노선 스탬프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

12월 20일까지 모바일 앱(워크 온)을 다운로드 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7개 코스(갑곶돈대 - 연

미정 - 고려천도공원 - 강화평화전망대 - 강화역사박물관 - 강화함상공원 - DMZ 평화의 길 강화 쉼터) 완주 인증 시 마지막 쉼터에서 기념품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DMZ 평화의 길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지역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출마선언문



안상수, 강화군수 출마하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능력있는 후보! 힘 있는 후보!**
안상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 시조 단군 님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참성단이 있는 **강화**. 고려시대 몽고가 유라시아를 지배할 때 임금님을 모시고 39년간 우리 국가를 지켜낸 **강화**. 개화기 외세의 통상 압박을 온몸으로 지키려다 350여 명의 선조가 산화한 우리 **강화**. 천년 고찰 전등사와 3대 관음 영지 보문사를 비롯한 많은 유서 깊은 사찰이 있는 **강화**. 130여 년 전부터 성공회, 천주교, 기독교 등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와서 국가, 국민의 정신적 풍요와 발전을 견인한 **강화**.

이렇게 강화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 이후 접경 지역이라는 꼬리표로 낙후되어만 가고 수도권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각종 규제로 도태되어 과거 12만 명 이상이던 인구가 현재는 7만 명을 밑도는 쇠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천호 前군수는 순직 하였고 군 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와병 중인 황망함에 군민 여러분의 걱정이 대단히 크십니다. 시의원도 군수 출마로 인해 사퇴하여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중심이던 강화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시장 시절 30%에 머물던 강화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당시 박용렬, 박희경 시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결국 50%를 돌파했고 이로 인해 현재 강화의 상수도 보급률이 80%까지 확대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긴요한 해안도로 대부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2014아시안게임 때는 강화를 소외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여 고인돌체육관도 건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 당시 유천호 동지와 박용렬 노인회 회장의 권유로 19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당시 공약대로 한강물을 강화로 끌어와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하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강화 군민들의 염원을 해결했습니다. 더는 딸, 며느리, 할머니께서 가뭄이나 홍수에 밤새도록 논, 밭의 물꼬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영원히 물 걱정 없는 강화를 만들었습니다. 통수되던 해, 2016년 양사면 경로당에 가서 설 세배를 드리는데 한 할머니께서 “내가 평생 물꼬보느라 고생했는데 안상수가 해결해줬으니 최고다”라며 “안상수가 평

생 국회의원 해먹어라”라고 하셔서 주변이 웃음바다가 된 적도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의 강화 선거 운동 시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는 고구저수지와 난정저수지를 방문하여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보고 ‘강화 가뭄 해소’를 당론으로 확정하였으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강화의 메마른 논을 방문하여 살수하는 광경을 전 국민에게 보여 드림으로써 강화 가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저는 당선 후 국회 농·해·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수산부와 치열한 협상 끝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5년 10월 15일 ‘한강물 임시관로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그 해 12월 15일 역사적인 통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듬해부터 우리 강화는 한강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한강물은 풍요로운 강화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 한강물은 발농사도 잘 되게 해 주지만 강화 산천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강화의 축복 같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한강수=안상수’라고 불러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일 뿐입니다.

이 시기 군에서도 (故) 유천호 군수

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화합과 단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 안상수가 지난 강화의 난제를 해결해 내며 보여드린 압도적인 추진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안상수처럼 강화의 목소리를 아우르며 보듬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화합과 번영은 힘 있는 안상수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군민들의 화합과 안정 속에서 더 큰 발전을 해내겠습니다.

강화는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강화의 천지개벽을 준비했습니다!

‘강화 군민 7만불 소득시대’를 열겠습니다. ‘힘 있게 1조 예산증대’를 이뤄야 합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매력적인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개벽’할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제가 이미 2010년 인천광역시 시장 당시 계획을 확정하여 인천 도시공사와 포스코 건설이 합작하여 진행하고 기공식까지 했으나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강화-영종 대교는 완공되는 순간 강화가 세계적인 공항의 완벽한 배후 도시가 되는 ‘천지개벽’을 가져올 것입니다.





강화 남단의 300~600만 평을 ‘송도’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연륙교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구조인데 ‘송도’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안상수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용역까지 끝낸 사업으로 결국 제가 추진해야 할 숙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안상수가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상수가 빠르게 완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강화가 연결된다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메디컬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MICE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 일자리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동아시아 축구센터’를 2년 내 조성하겠습니다.

강화읍을 비롯한 북단이 인구가 30%를 차지하는데 송해면 인근에 축구장 트랙 20면을 비롯하여 각종 구장을 건설하고 아시아 각국의 축구 대표 선수들과 꿈나무들의 전지훈련장 및 육성 공간으로 활용하여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광역시장 재임 시절 히딩크 감독과 인천 서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로서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K-축구가 선망의 대상인 만큼 양질의 인프라와 육성 시스템 도입, 유명 코치단을 유치하면 국내외에서 연간 수만 명의 선수들과 스태프, 가족들이 찾는 명소가 거듭됩니다.

저 안상수는 이런 대형 관광 인

프라 시설에 지역주민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여 강화의 일자리 창출까지 챙기겠습니다.

대형 인프라 시설들을 통해 강화의 모든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군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농민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자손들은 농업을 선호하지 않는 가운데 상속이 제한되고 고율의 상속세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혹한 농업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한 농촌 체류형 단지 조성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개별 전수조사를 통해 처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펜션, 카페, 식당을 위한 ‘마이 터치 강화’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강화는 많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원들이 국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강화에 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잘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각종 혜택을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함께 여행객이 실감해 볼 수 있는 ‘내 손안의 강화 여행 플래너’를 구현하겠습니다.

단순한 관광객 증대가 아닌 강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마시고 맛보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 관광객들의 즐거운 소비가 병행되는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Buy 강화’ 세일즈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강화 관광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오겠습니다.



연간 3천만 명 강화 관광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약속을 통해 강화의 천지개벽과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강화군민소득 7만 불 시대, 1조 예산 증대, 10만 군민의 강화로 안상수가 ‘천지개벽’ 만들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과 강화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기 위해 큰 다섯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공약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공약발표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 내부 도로망 개선(고속화) 및 확·포장을 통한 교통, 물류의 흐름 개선 △주요 도로변 나들 쉼터, 팝업스토어 등 문화 공간이 함께하는 대형 주차장 조성 △파크골프장 108홀 조성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사업 △읍·면별 공영주차장 대폭 확대 △국제해변마라톤 등 다양한 축제 행사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한 강화 의료원 유치 △헬스케어안심AI경로당 사업 △어촌 뉴딜 사업 확대 △100세 장수축하금 300만 원 지급 등 섬세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 여러분!

저는 제15대 계양·강화군(갑)으로 인면을 맺고 제19대 서구·강화군(을) 그리고 제20대 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으로 강화 군민 여러분과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무소속인 저를 당선시켜주셨던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금의 혼란한 강화를 안정시키고 초대형 외자유치 사업 등 안상수만이 가능한 일을 잘 마무리

해서 강화 군민께 봉사하는 것만이 군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안상수는 취임 다음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군민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저 안상수와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 후보들께서 군민을 위한 훌륭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면 군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는 열린 마음으로 잘 취합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가 걸어 온 길

출생 : 1946년 5월 28일, 충남 태안군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학사
-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력사항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인천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 강화군옹진군/미래통합당)
-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 자유한국당 조찬기도회 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서구강화군을/무소속)
-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제3대 인천광역시 시장
- 제15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강화군갑/한나라당)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예정

강화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해양치유지구 용역착수 보고회

강화군은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강화군의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 계로, 강화군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회에는 강화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전산업국장, 부서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포함하여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강화군에 해양치유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건강과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7,372억원 규모 2회추경 편성

502억원 증액, 주민 생활안전 조성 및 안정적 재정운용 편성



강화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을 1회 추경 대비 7.31%(502억 원)를 증액한 7,372억 원으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영으로 긴급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불확실한 경기 여건과 지속적인 건전재정 기조 및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13억 원을 적립(예탁) 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군 재정 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 및 증액사업으로는 ▲온천공 매입 및

개발사업(18억 원) ▲덕하천 정비 사업(6억 원) ▲마을 안길 미불용지 보상(8억 원) ▲지능형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4억 원)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및 개선(4억 원) ▲건평 돈대 보수 정비 공사(45억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3.4억 원) 등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국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분 등을 반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KEYWORD NOW

Liquidpolitan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은 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퀴드(Liquid)'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탄(Politan)'의 합성어로 액체처럼 유연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는 유동적이고 다변화된 도시 생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시가 더 이상 지리적 경계 내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대사회는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교통이 발달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하며 여러 생활권을 누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리퀴드폴리탄은 지역이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닌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퀴드폴리탄은 특히나 인구 감소와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구 개념과 생활권 설정을 통해 도시 계획을 더욱 발전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강원도 양양은 서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TX와 같은 교통 발달로 인해 서울과 각 지역마다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강원도 양양은 더 이상 도심과 동떨어진 지역이 아닌, 유연한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강화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관광의 시대를 업그레이드하여 주변 생활권을 흡수하는 업그레이드된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리퀴드폴리탄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전 심의·의결 강화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강화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강화군의회(의장 배충원)가 27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9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강화군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되는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없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20일간 총 8회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강화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 필요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 등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0일간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바우처 선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며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여 강화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아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우울증 선별 검사, K10-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사업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7.1.~12.31.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폐지로 온라인 신청(24.10월 예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웹 www.129.go.kr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마음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최소)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02,000원(총 8회 기준)



‘강화군-이마트 - CJ제일제당’ MOU체결 강화섬쌀이 프리미엄 즉석밥 핫반브랜드로 재출시!



강화군-이마트 - CJ제일제당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



을 생산하고, 전문 유통채널을 보유한 이마트를 통해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고품질 강화섬쌀의 뛰어난 밥맛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핫반 강화섬쌀밥’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됐다. CJ제일제당의 기술이 집약된 숯밥의 특징을 살린 용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강화섬쌀에 보리 달인 물을 넣어 구수한 맛과 향을 숯반에 담아내 기존 핫반과 차별화했다.

강화군은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양, 밤낮의 뚜렷한 기온차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강화섬쌀’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CJ 핫반이 국내 즉석밥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 1위 상품인 만큼 이번 ‘핫반 강화섬쌀밥’의 출시로 강화군민들이 기쁨과 기대가 크다.”며, “강화섬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쌀 사용에 앞장 서준 CJ제일제당, 이마트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지역 대표 농산물인 강화섬쌀이 프리미엄 즉석밥 ‘핫반 강화섬쌀’ 브랜드로 재 탄생한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이마트-CJ제일제당과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이마트 HomeMeal담당 이형순 상무와 CJ제일제당 KAM SU장 한준봉 상무 및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핫반 강화섬쌀밥’의 출시에 따른 판로 확대 및 강화섬쌀의 홍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고품질 강화섬쌀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교동면, 양사면 추석맞이 햅쌀 판매 예정 강화군, 고품질 강화섬쌀 올해 첫 벼 베기 진행



강화군 고품질 강화섬쌀 올해 첫 벼 베기



양사면 첫 벼 베기 진행

강화군이 지난 25일, 교동면 삼선리 최복환 농가와 양사면 고봉환 농가에서에서 강화섬쌀 첫 벼 베기를 진행하며 수확 철의 시작을 알렸다.

벼 수확은 외관상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진행되며, 조생종은 출수 후 45~50일, 중생종은 50~55일, 중만생종은 55~60일이 적기이다. 특히 물 빠짐이 좋은 논은 벼가 잘 여물 수 있도록 가급적 물떼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이날 수확한 벼는 지난 5월 4일 이앙 후 113일 만에 수확한 극조생종 여르미로,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4kg과 10kg 단위로 포장해 추석맞이 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강화섬쌀은 풍부한 일조량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척지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강화섬쌀 첫 벼 베기를 진행한 최복환 농가는

“올해 여름철은 잦은 강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풍년의 결실을 맞아 벼 베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기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분들은 남은 수확기까지 멸구류·혹명나방 등 벼 후기 병해충 방제와 철저한 물관리에 힘쓰며 적기 수확 및 적은 건조를 통해 고품질 강화섬쌀 생산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 최백하 기자

화도면,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심폐 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화도면, 현업근로자 대상 심폐 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강화군 화도면(면장 박수연)은 지난 22일 현업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 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강사를 초빙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화도면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응급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 초기 대응 능력을 기르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비상 대피 방법, △응급처치 교육,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위급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박수연 화도면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응급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안전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연결, 지속적 모니터링 등 강화군,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군 치매안심(인지건강) 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례관리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인지 기능 및 정신행동 증상 평가 ▲문제행동 조절 및 사정 ▲사고예방 및 안전 관리 ▲동반 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용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치매 치료관리자 지원, 조호 물품 제공,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치매환자의 다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학제 진료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문제를 지역 내 자원과 발굴·개발·연계 하여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화도면 내 3리 노인회, 쾌적한 마을 조성 환경정화 활동



화도면 내3리 노인회 환경정화 활동

강화군 화도면 내 3리 노인회는 지난 13일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활동에 참여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내 3리 마을 구석구석을 걸으며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해 깨끗한 화도면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박은주 내 3리 노인회장은 “오늘 회원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한 화도면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마을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화도면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에 힘써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해진 마을을 보니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화도면의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내가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외포항 일원 해안쓰레기 수거에 온 힘을 쏟다!!



내가면 바르게살기 해안쓰레기 수거

강화군 내가면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조상진)는 지난 14일 외포항 해안가부터 삼별초 항쟁비 일원까지 해안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이날 회원 25명은 외포항부터 삼별초 항쟁비 일원에 버려지고 적치된 페트병, 스티로폼 등 약 2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이곳은 여름철 해안가 경관을 즐기기 위해 지역주민과 외지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나들길 16코스 또한 위치해 있다.

조상진 회장은 “외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은석 내가면장은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내가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 건강한 여름 나세요!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진행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한 여름나기

강화군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규숙)는 지난 13일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직접 만든 밀반찬과 시원한 여름 잠옷을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폈다.

이규숙 위원장은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이 이번 여름 더위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영 양사면장은 “폭염속에서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두가 동행하는 양사면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주민과 기업·단체의 성금으로 활동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 연계사업으로 연중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최백하 기자

8월 26일부터 인천시 광역버스를 8만 원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 인천 광역버스를 무제한 사용하는 「인천 광역 -i패스」 시작



인천광역시시는 8월 26일부터 인천시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5월 1일,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 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제공하고, 더욱 폭 넓고 세밀한 대중교통 서비스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인천 I-패스' 사업의 시즌 2로,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인 '인천 광역 I-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안정화, 가입자 확보, 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으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8만 원을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인천 광역 I-패스' 카드는 인천시 관내 GS25 편의점 및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GS25 편의점 및 '인천 광역 I-패스'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카드 구입 후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인천 광역 I-패스 앱에 카드를 등록해야 분실, 도난, 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가능 노선은 직행좌석형 버스, 광역급행(M버스)형 버스, BRT 버스(7700번)로 26개 노선 약 210여 대가 대상이며, 공항버스(6770, 6777, 6777-1) 및 인천시내를 운행하지만 인천시 운영 버스가 아닌 M6410, 3001, 3002번 버스는 제외된다. M6410, 3001, 3002번 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후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제외 대상 버스라도 K-패스(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일정비율 환급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광역버스 승·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 하는 방식으로,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누적되면 직전 승차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하차 시 태그해야 한다.

또한 인천 광역 I-패스 카드는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이용 패턴이 환승하지 않고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환승을 해야 한다면 K-패스(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 노선,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인천 광역 I-패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행 4개월째인 인천 I-패스 사업은 현재 가입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12만 6천 명보다 6만여 명 많은 18만 6천 명이며, 지난 6월 실시한 민선 8기 2년 차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사업 설문조사에서는 1위로 선정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최고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인천 광역 I-패스」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8월 20일 인천시,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최영락), ㈜이동의즐거움(대표이사 손민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내용이 담겼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지난 5월 1일 시행한 인천 I-패스 정책에 이어 이번에 준비한 광역 I-패스 정책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년도 대비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 21% 증가, 한 달간 약 25만 대 혜택 원적산·만월산 터널 무료 통행으로 시민 체감 Up, 경제 부담 Down

인천광역시시는 7월 17일 원적산 터널 및 만월산 터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 동 기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적산 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은 10만 7,284대로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으며, 만월산 터널(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은 14만 1,136대로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이 시행된 한 달 동안, 두 터널을 이용한 차량 약 25만 대가 1억 9천만 원

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약 300만 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모든 차량이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며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이용 차량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적산·만월산 터널 무료 및 무정차 통행으로 통행량 증가

기고 창덕궁에 규장각, 강화에 외규장각

이경수



외규장각 의궤 고유제

더위가 무서워

“내 평생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

이 말을 열 번쯤 하고서야 8월의 끝을 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끈적한 습기가 사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더위도 습해도 할 일을 안 할 수 없는 법! 이번 호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나, 고민합니다. 그래, 외규장각으로 하자.

결정하고 우선 고려궁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외규장각 안에 들어가 봤어요. 중앙 자리 차지하고 있던 전시대를 치웠더군요. 좀 허전하디 싶다가, 아니, 외려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좁은 실내 공간에 전시대까지 있어서 여러 명이 관람하기에는 불편했거든요. 벽면에 설치한 자료만으로도 외규장각이 어떤 곳이고, 거기 보관하고 있던 의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규장각과 집현전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대개 세종(1418~1450)을 꼽습니다. 버금가는 임금으로 정조(1776~1800)를 말합니다. 저도 세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조에게 더 정이 갑니다. 즉위 당시 세종이 온실의 화초였다면, 정조는 거친 들판의 풀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들 세종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신하들을 미리미리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라도, 앞으로 세종이 정사를 펼치는데 부담이 될 사람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내쳤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안정적인 조정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왕이 되기 전까지, 되고 나서도, 암살 위협에 시달릴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한 신하들, 자신마저 죽이려 했던 그 신하들이 포진한 조정입니다. 보통 멘탈이라면 진작에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정글 같은 조정에서 반듯한 왕으로 우뚝 섭니다.

정조가 즉위한 해가 1776년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바로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합니다. 창덕궁 안에다가요. 규장각은 역대 임금의 글씨 등과 국내외 희귀서적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이면서 출판사이고 또 학문 연구 기관입니다. 집현전과 비슷한 셈입니다.

집현전이 있는데 왜 규장각을 세웠지?

집현전이 워낙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금방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종이 1420년(세종 2)에 설치했는데 세종이 1456년(세조 2)에 폐지해버립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집현전이 존재하던 기간은 햇수로 37년에 불과합니다.

세조(수양대군)는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즉위했지요. 이에 맞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발각됩니다. 단종복위운동을 이끈 이들 중에 집현전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정조의 싱크탱크

규장각이 표면적으로 왕실 도서관입니다만, 사실은 정조의 싱크탱크 기능까지 수행했습니다.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정조 개혁 정치의 중추 기관이었습니다.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규장각에 속한 관리들은 ‘정조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학문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기존 관리 중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조의 선택은 서얼(庶孽) 출신 학자였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서’는 양반과 양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얼’은 양반과 천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서얼을 일반적인 서자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서얼은 학문이 뛰어나도 과거(문과)에 응시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영조 때부터 서얼을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이 추진됐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규장각에 서얼 출신 학자들을 뽑아 들였습니다. 유득공·이덕무·박제가입니다.

서얼을 뽑으면 신하들이 반발하겠죠? 더구나 과거 급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정조가 다 계획이

바로잡습니다! 지난 제68호(2024.08.15.) <역사의 숲속, 전등사> 글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정화궁주의 한자를 貞和公主라고 틀리게 썼네요. 貞和宮主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다시 검토하다가 알았는데, 정화궁주를 가리키는 호칭인 ‘원비’의 한자가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왕비라는 의미의 ‘元妃’ 외에 후궁을 의미하는 ‘院妃’로도 불렸습니다. 《고려사절요》(1319)에 이르기를, “정신부주(眞信府主) 왕씨가 사망하였으니, 곧 충렬왕의 원비(元妃) 정화원비(貞和院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眞信府主, 貞和元妃, 貞和院妃가 다 정화궁주를 가리키는 호칭인 것입니다.



의궤 이봉 행렬



창덕궁 규장각

있었습니다. ‘검서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유득공 등을 등용한 겁니다. 기존 관직에 서열을 임명하면, 과거 출신 관료들의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관료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새 관직 ‘검서관’을 둔 것입니다.

정조는 이런 식으로 양반 관료들을 구슬렸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검서관 별거 아냐. 당신들은 정규직, 검서관은 그냥 계약직이야. 내가 규장각에 두고 허드렛일이나 시키려고 뽑은 거야.”

겉보기에 초라한 검서관, 하지만 그들은 정조의 최측근으로 무시 못 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임금과 신하 관계를 넘어 서로 피붙이 같은 정을 나눴습니다. 정조는 특히 박제가를 아꼈어요.

《북학의》의 저자이기도 한 검서관 박제가, 정말이지 신명 나게 일했습니다. 숙직을 밤 먹듯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나홀에 한 번 겨우 집에 가는데 / 늦은 귀가 언제나 해가 질 무렵 / ... 어린 자식 오랜만에 나를 보더니 / 오려다간 다시금 머뭇거린다. / 배로 기어 제 어미를 향해 가는데 / 문득 보니 영락없는 두꺼비보다.”

박제가가 지은 시입니다. 젓먹이 자식이 자기를 낫설어하는 섭섭함을 표현했으나, 행간에서 나랏일 하는 행복이 읽힙니다.

외규장각 불타다

1782년(정조 6), 정조가 강화에 또 하나의 규장각을 세웁니다. 바로 외규장각(外奎章閣)이에요. 외규장각은 왕실 서고입니다. 창덕궁 규장각에 있던 책들 일부를 강화 외규장각으로 옮겼습니다.

정조가 반란이나 전쟁 또는 기타 사고로 규장각 책이 불탈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보다 안전하다고 믿은 강화도로 중요 도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강화에서 보관하던 서적들과 합쳤는데, 모두 5천여 권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어쩔 수 없이 후회를 거듭 쌓아가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기대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정조는 한양보다 강화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고 외규장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양 규장각 서적은 안전하게 남았고, 강화 외규장각 책들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재가 돼버린 외규장각의 소중한 책들, 규장각에 그냥 있었다면, 무사했을 겁니다.

병인양요(1866)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책까지 타 버렸습니다. 1782년에 설치했으니, 외규장각의 역사는 85년간이었습니다.

외규장각 도서가 모두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강화부 점령 초에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서 아주 귀해 보이는 책 3백여 권을 빼내 자기들 배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탈취해 간 책이 의궤(儀軌)입니다.

의궤 이야기

의궤(儀軌)란 나라와 왕실의 주요 행사나 건축 조영 등이 있을 때, 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와 방법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필요한 경우 자세한 그림도 삽입했습니다. 일반 책보다 두 세 배 커서 금방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이 자제 혼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상견례 장소, 예물, 결혼식장, 식순, 주례와 사회는 누구, 축가는 누가 뭘 불렀고, 축의금 총액은 얼마이고 식대 등 지출 내역은 또 어떠한지. 여기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렇다면, 집안의 ‘의궤’를 제작하신 셈입니다.

조선시대, 특성 행사의 의궤를 딱 한 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분상용(分上用) 의궤 여러 권과 어람용(御

覽用) 의궤 한 권씩 제작합니다.

분상용 의궤는 해당 관청과 전국 사고에 보관합니다. 어람용 의궤는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라 특별제작합니다. 표지나 종이가 분상용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글씨도 또박또박 정성스럽고 그림도 더 또렷하게 그립니다.

강화 외규장각에 보관했던 의궤는 어람용 의궤입니다. 프랑스군이 가져간 의궤가 바로 어람용 의궤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프랑스군이라고 해도 단박에 귀한 책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75년에 박병선(1928~2011) 선생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의궤를 찾아냈습니다. 모두 297 권이었습니다. 박병선은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991년에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1992년부터 한국과 프랑스의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길고 긴 협상 끝에 드디어 프랑스가 의궤 전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이네요.

의궤가 돌아온 2011년 그해, 6월 11일, 강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화산성 남문에서 외규장각까지 의궤를 옮기는 가장행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외규장각에서 고유제를 올렸습니다.

의궤가 국내로 돌아오긴 했는데, 완전한 반환은 아닙니다. ‘영구 대여’ 형식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들이 약탈해 간 것을 돌려받은 건데, 겨우 대여라니... ‘영구 대여’라는 게 이상하고 또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대여’ 형식으로 2007년에 왔던 수자기(帥字旗)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구 대여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요.

고려궁지 안에 외규장각이 복원된 것은 의궤 반환 운동이 진행 중이던 2003년입니다. 발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병인양요 직전에 제작된 강화부 궁전도(江華府宮殿圖,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의 외규장각 그림을 참고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강화에는 의궤를 보관했던 곳이 둘이나 되네요. 어람용 의궤는 외규장각에, 분상용 의궤는? 그렇지요. 정족산사고에 모셨습니다. 사고에 실록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

기고 “왜 강화군수가 되려는가”… 출마자들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한달 보름 남짓 남았다. 출마자가 무려 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중순까지 강화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만 12명(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었다. 선거관을 도박관으로 여기는지 “나도 한번 강화군수가 되어보겠다”며 생각지도 못한 출마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출마 당사자들은 이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선거관은 역대 최장의 무더운 날씨도 뛰어넘을 만큼 뜨거워졌다. 출마자 모두가 강화군과 남다른 인연, 지역 내 활동, 정치권과의 각별한 인맥 등을 내세우고 강화 발전의 최고의 책임자라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탐나게 하며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혈안이다. 피약별도 마다않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거나 띠를 어깨에 두르고 지역 곳곳을 누빈다. 교통량이 많은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꽃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강화풍물시장 고려인삼센터 국궁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기도 한다. 어떤 출마자는 공약집을 담은 SNS카드를 만들어 지역 언론 및 유력 인사들에게 배부하고 또 다른 출마자는 각종 모임을 찾아다닌다. 보수의 표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출마자들이 당적 세탁도 이뤄지고 있다.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나

무소속으로 자신의 소속을 바꾼다.

출마자가 다양하다 보니 공약도 각양각색이다.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자유구역 조성, 조력 발전소 건설, 경로당 의료거점화 추진, 의료 서비스 개선 및 확충, 바이오지구 유치 등 거창한 공약에서부터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 확대, 주택관리소 확충, 임차한 콩탈곡기 현장수거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눈에 띈다.

구슬땀을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출마자들의 마음은 벌써 ‘선거후 당선’이라는 공발에 가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특히 강화도 민심을 선도한다는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감동을 줄만한 하거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만한 인물이 확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출마자들의 면면이 도토리 키재식이다보니 자연 친소관계와 각종 인맥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편이 갈라져 뜻하지 않은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한다.

강화군은 오랫동안 군수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과 시골이라는 특수성과 강화군만의 정서인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가능했다. 군의회와 언론, 사회단체 등이 군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해왔다고 하지만 이는 ‘눈감고 아웅’식의 역할에 그쳤다. 때로는 군수 개인의 독단적이고 지나친 일처리로 예산 낭비와 공무원 편가르기 등의 폐해를 가져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이 강화군수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강화군에 강력한 새 바람을 몰고올 인물이 당선되었으면 한다. 강화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독단적인 군정 운영 자세를 버리고 섬이 갖고 있는 배타성과 폐쇄성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독단과 폐쇄성, 배타성은 동네 구멍가게식의 군정 운영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자기네들끼리만 밀실에서 의사결정에 합의하고 군정을 집행할 때는 좋게 작용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명천지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폐쇄적으로 군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지역에서 끼리끼리 해먹고, 군수의 지시에 토를 다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내쫓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군수 눈에 잘 들기만 하면 고위 공무원이 퇴직해서도 여전히 산하기관장 자리를 꿰차는 현실에 어떻게 강화군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동네 구멍가게식 군정 운영이 어찌보면 강화군이 인근의 김포시나 파주시에 비해 크게 뒤쳐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강화군정은 이제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에게 상명하복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인물이 강화군수가 되어야 한다.

곧 추석이다. 추석에 가족과 친인척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출마자들에 대한 평가와 호불호가 이야기 식단에 오를 것이다. 과연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추석 연휴를 맞아 출마자들은 민심을 청취하면서 “나는 진짜 왜 강화군수가 되려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길 바란다. 그러면 자신이 강화 출신이라는 인맥이나 장밋빛 공약을 억지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강화군민을 위한 행정의 해답이 보이고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을 것이다.

관내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 봉사활동 불은면 새마을회, 사랑의 손길로 ‘똑딱 똑딱’



불은면 새마을회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불은면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장 김학겸, 부녀회장 채복분)가 지난 14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20여 명은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집안 도배, 페인트 도장 및 샷시 교체, 창문 비가림막 설치 등을 하였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남·여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랑 나눔 활동으로, 매년 3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학겸, 채복분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새마을남·여지도자가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사랑 나눔 활동들을 지속하겠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했다.

염명희 불은면장은 “그냥 서있기만 해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값진 구슬땀을 흘려주신 새마을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감사
기고

군민과 함께 걸어온 강화투데이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존경하는 강화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2021년 창간하여 한해 한해, 군민의 소리에 귀기 울이며 민의를 전달하는 마음을 품고 지역뉴스의 전달자로 걸어온지 이제 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지와는 다르게 항상 꽃길만 걸어갈 수 없기에,

3년이란 세월을 지나오며 때로는 질투와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언제나 낮은 자세로 '나'와는 다를 수 있는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언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문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도,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느끼는 건, 아마도 격동의 한 가운데에서 도약하는 강화의 모습을 역사의 산증인으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군은 한걸음 더 내딛는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유투피아와 카오

스의 양립한 경계에 서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화는 역사적으로도 저력 있는 사람들이 지켜온 곳이기에 우리는 이 혼란의 시기를 발판 삼아 분명한 한단계 도약하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화투데이는 이 시기를 기록하고 진정한 민의를 전달할 것을 사명으로 삼고 군민 간의 소통의 선봉과 강화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바른 지역언론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달려온 지난 시간은 부족한 인력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반환경이 위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시간동안 달려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과 강화 군청의 관계자분들의 독려와 아낌없는 격려란걸 잘 알고 있으며 중간에 좌초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또한, 눈앞의 이익보다 군민의 눈과 발이 되겠다는 의지가 앞섰기에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었으며, 편협한 시각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독자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역신문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은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 고향, 내 땅, 내 터전이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강화투데이는 지난 3년의 시간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강화 중심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어려운 곳, 어두운 곳의 속내를 긁어주고 가시화하여 문제 제기를 통해 더 성숙하고 발전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강화투데이는 강화 군민 여러분께 더 더욱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하고 기쁨에 흥겨울 지역언론의 모범적 거울이 될 것을 지난 2021년의 초심을 되새기며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새로운 강화군수의 강화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기대해 보는 이 시기에 저희 신문사의 3주년을 감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강화에 발 맞추어 새로운 강화투데이, 더욱 신뢰받는 언론이 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강화군 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강화군이 군민의 문화능력 향유와 친근한 우리 동네 도서관 마련을 위해 5개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 도서관에서는 '문인화 교실', '서예 교실', '여행스케치', '어반스케치', '캘리그래피와 지우개 스탬프', '동시와 동화로 배우는 세계의 위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영화와

만나다', '오일 파스텔화', '친구와 함께', '그림책과 만나는 섬유공예', '감성 수채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며, ▲내가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친구 만들기', '이게 다 그림책이라니!'를 준비했다.

▲길상 및 하점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으로 만나는 타로의 지혜', '그림책과 함께하는 나에게 쓰는 편지', '영어 원서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프로그램 및 도서관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anghwa.go.kr>) 및 각 도서관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독서문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폭염에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위한 물품지원, 모니터링 등 실시 강화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790명에 모자 전달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790명의 어르신들에게 모자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겼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폭염에 무리하지 않도록 매일 활동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해 모자 착용, 활동량 조정 등 어르신들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한 어르신은 “시원한 물과 모자도 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습에 열심히 일할 맛이 난다”며, “복지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심 관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계획이며,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노인복지관 혹서기 모자 전달

다문화가족 대상, 꿈 채움 프로젝트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강화군가족센터, 온 가족 스네그 골프 체험 성료!



꿈 채움 프로젝트 온가족 스네그 골프체험



꿈 채움 프로젝트 온가족 스네그 골프체험



꿈 채움 프로젝트 온가족 스네그 골프체험

강화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석)가 지난 17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꿈 채움 프로젝트 온 가족 골프 체험을 성료 했다고 밝혔다.

강화군가족센터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후원·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중국, 모로코, 키르기스스탄 등 12개국 관내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네그 골프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스네그 골프는 초보자나 어린이를 위한 변형된 버전의 골프로, 기존의 전문적인 골프 규칙과 코

스 설계를 단순화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빠르게 배워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날은 JTBC 골프 해설 위원인 한설희 프로 골퍼가 함께 골프의 기본 기술을 가르치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등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은 새로운 스포츠인 스네그 골프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강화했고, 아이들은 꿈을 키우며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했다.

골프 체험에 함께한 참가자는 “아이들과 함께 골프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우석 센터장은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체험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행사 개최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진행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에서는 지난 14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동들과 함께 최근 강화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아트팩토리 참

기름 강화', '강화천문과학관'을 찾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첫번째로, '아트팩토리 참기름 강화'를 방문해 디지털 미디어아트 및 8M 초대형 전시공간에서 고흐 화가의 삶과 그의 작품들을 돌아보는 영상 관람과 함께 음악을 감상했다.

이어서 강화천문과학관을 방문하여 대형 천체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흑점 및 홍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그 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오늘 행사가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다

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미경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체험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아동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순이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해 준 강화군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양한 체험을 계기로 아이들이 더욱 넓은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금연구역 확대,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강화군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17일부터 30m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군 보건소는 이러한 내용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흡연자 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외에도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기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까지 금연구역 확대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단,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

9월 30일까지

강화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한달간, 미신고 집중단속. 미 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화군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등록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 하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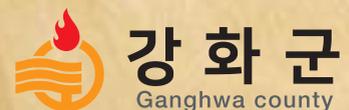
동물등록 방법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해 내장 칩 삽입 또는 외장 칩을 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정부 24, 또는 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 한 달간은 미신고 반려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제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주민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물등록 제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의 초석입니다!!

우리와 두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낳았고
모두 등록증이 있어서 안심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